

안드레스 두란
Andrés Durán

안드레스 두란의 예술 창작은 주로 크기와 다양한 물질성, 포맷, 맥락의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된 실험과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작업의 바탕을 이룬 <이미지 경험의 제 조건들>은 근본적인 전제로서 경험, 특히 심미적 경험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건내고 있다.

두란은 이미지의 제작과 순환을 위해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복잡한 현재의 기념비적인 장치들과 다양한 형식들을 갖고 작업하면서, 시각적 경험의 폐허와 잔여물들을 인지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다. 그의 중요한 작품들인 <카르텔 가옥>(2001), <황무지>(2002), <까치밭>(2003)에서 이미지, 즉 일반적으로 사진 이미지이거나 비디오 그래픽적인 이미지들은 전송, 인쇄, 프로젝션의 조건들과 표준적인 - 하지만 극단적인 - 공간에 체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그 조건들로부터 결과하는 것은 명백히 변칙적인 형태로 등장하는 이미지들이다. 그와 같은 변칙들, 약화된 성장, 파편화, 동요, 이미지 접기와 초점의 결핍이 작품의 형식적인 특징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 관람자가 자신의 위치를 경험의 주체의 자리에 둘 수 있다는 장점이 도출된다. 이제 관객은 사물들의 시각성과 예술의 가시성 사이에서 동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냉정하고 준엄한 시학, 적대감과 축출의 시학을 실천하는 <황무지>는 예술의 조건이 메마른 황무지처럼 공허하고 쓸모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각적인 유린임을 명시한다. 그것은 거의 뒤틀린 듯한 엄정함을 갖고 정신 착란적인 산포(dissemination)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현대적인 예술 창작의 특징을 이루는 순수한 외면성의 태도를 추적한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누가 자기 집을 운반할 수 있고 운반할 것인가라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거처 없이 남겨진 거처 자체라는 점에서 거처라는 개념을 다루는 가운데 유랑 중인 그 개념이 드러내는 역설을 미리 성찰한다.

따라서 그는 본질적으로 외면적이고 유랑적인 예술의 "탈거처화된" 조건을 제시하고 갤러리 벽에 예술의 거처로서의 예술의 불안정함과 불확실함을 투사함으로써 예증적인 방식으로 현대 예술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산포, 프레젠테이션, 각인과 기록. 세 쟁점의 상관관계는 금번 작업에 동원된 세 가지 예증적인 모티브, 즉 상자, 쥘 상자, 프로젝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작로 아르쿠에로스
(미술비평가, 미술사가)



<황무지> Terreno baldío, 2003
영상 설치 Video-instalación
가변크기 Dimensiones variables

